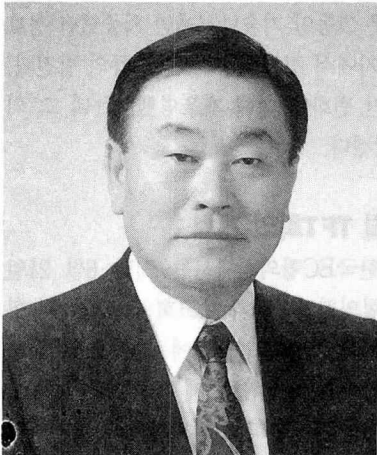


세계화 시대의



21세기를 목전에 둔 격변의 시기에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의 두 얼굴로 다가선 세계화의 실상은 무엇이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큰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소망스런 인물들을 키워 낼 것인가?

이러한 절박한 물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세계화의 현상 및 특성

세계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념의 장벽이 소멸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무역자유화 및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한 국제정보교환의 급팽창으로인한 국가와 시장, 문화, 제도 등이 교류·결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핵심자원인 지식중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엘빈토플러는 저서 『권력이동』에서 권력중심의 이동방향이 과거의 폭력에서 부(富)로, 다시 지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고, 역시

미래학자 P. 드러커도 앞으로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을 지식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세계 일류만이 살아남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시장에서 기업이 생존하는 조건이 세계 1등이며, 이 때문에 기술보호주의가 날로 심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문화면에서는 국제문화 재편의 시대로 접어들어 문화혼재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때문에 자국문화 정체성(正體性)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영어와 헐리우드로 상징되는 미국문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듯이 문화 경쟁력의 위상이 세계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같이 문화정체성(Identity)을 갖는 것이 당당한 세계시민의 전제조건이 되어 있다. 또한 오늘날은 정보매체가 잉크에서 빛으로 변화함에 따라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스피드시대이기도 하다.

세계화 시대의 인재상 : ‘큰사람’

큰사람 개념의 역사적 고찰

역사적으로 성현들은 큰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 공자 [君子] : 중용지도(中庸之道) ; 용맹을 좋아하고 빈곤한 것을 싫어함도 나쁘고, 인(仁 : 인간다움)이 아닌 것을 지나치게 미워함도 나쁘다.
- 맹자 [大人] : 인간이 본성을 되찾으면 선하게 된다.
- 플라톤 [IDEA론] : 물리적 사물외에 아름다움, 올바름 등의 형상이 존재하며 최고의 단계는 선(The Good)이다.
- 원효대사 [眞俗一如, 染淨不二] : 깨달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아직 염오(染汚)한 단계(俗)의 중생을 끌어갈 의무가 있다.
- 이이 [道學精神] : 성정(誠正)으로 몸을 닦아 덕을 이루고, 그것을 정사(政事)에 베풀면 정도(正道)이다.
- 페스탈로찌 [全人的, 調和的 人間] : 묘비명 ; “모든 것은 남을 위해서였으며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큰사람 양성

- 그룬투비 [愛國者] : 일하는 국민을 위한 ‘생활학교’를 주장, 국민 부흥에 평생을 바쳤다.
- 슈바이처 [人類의 兄弟愛, ‘生命에 대한 敬意’ 哲學] : 생명존중이 문명의 존속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 간디 [非暴力과 和解] : 무소유와 평정 ; 물질적 욕망의 절제와 정신적 갈등의 절제를 ……

큰사람의 조건

과거 성현들의 뜻을 받들며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큰 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더불어 사는 사람, 즉 열린마음을 가진 상생인(相生人)이다.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류공존공영을 위한 정신개혁이 필요하고, 경제 및 문화의 격렬한 경쟁속에서 선두와 낙오그룹간의 깊어가는 질곡과 그로인한 폐해를 해결하는 능력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둘째, 만들어 가는 사람, 열린머리를 가진 창조인이다. 창조인은 지식의 소유자로 머물지 않고 지식의 연결/조직화를 통하여 지식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문제해결과 사고를 실천하고, 21세기 지식경제시대의 주역으로 국가/기업경쟁력을 창출한다. 세째, 뻗어나가는 사람, 열린 행동을 하는 세계인이다. 세계인은 문화주체성을 가지고 다문화 수용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며, 국제수준의 예의 범절과 에티켓을 습득하고, 명확한 목적의식을 기반으로 주체적 세계관에 따라 활동한다. 그리고 인종과 관습, 종교 등의 다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가진다. 네째, 뿌리정신을 가진 애국인이다. 세계문화 조류의 한 뿌리로서 민족의 주체성(Identity)을 지킬 수 있으며, 민족의 주체성을 구심점으로 열린마음, 열린머리, 열린행동을 주체적으로 일관성있게 실천한다.

큰사람을 양성하는 바른 교육

큰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

큰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봉사교육으로 ‘상생정신(相生精神)’을 기른다. 사회봉사교육으로 ‘자기충족적인 고립된 기능인’의 양산을 막고,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상생(相生)의 논리를 체득하도록 한다. 사회봉사의 체험을 인성발달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간주하고, 충(忠)·효(孝)·예(禮)를 포괄하는 한치원 높은 개념으로 승화시키도록 한다. 둘째, 창조적 전문가 교육으로 ‘발상전환 및 초기능적 능력’을 갖도록 한다. 21세기 정보화/지식사회의 지식 탐구와 업무수행수단으로서의 컴퓨터 및 정보화 교육을 중시한다. 지식의 축적 및 공유수단의 변천이 지필묵(紙筆墨)과 인쇄물을 거쳐 컴퓨터로 변화했고, 전문지식인의 가치창출이 지식통달 단계와 업무수행단계, 그리고 지식발굴단계, 활용을 통한 창조적 구현단계 등 4단계로 발전되어 감으로 컴퓨터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전문가가 육성되도록 한다. 세째, 국제문화 이해교육으로 ‘다문화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타문화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국제교류장애를 저지하고, 타문화 적응능력의 제고를 위한 연수시설을 운영, 외국학생의 적극적인 유치 등을 추진한다. 네째, 전통사상교육으로 ‘정신적 국적’을 강화시킨다. 한국의 탁월한 사상적 유산을 교육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나타날 가치관에 대비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함양토록 한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 장 남궁 석

[이 글은 남궁석 회장이 지난 5월30일 고려대학교 주최로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바른교육·큰사람 만들기”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의 요약이다.]